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9월 15일(금)
(윤력 8월 1일)
Пятница
15 сентября 2023 г.
№ 36 (1205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141주년 맞아 9월 9일 '로가트카'강 둔치 공원에서 열린 미술전시회.

(이예식 기자 촬영)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상, 워스토츠니 우주 기지에서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상이 9월 13일 아무르 주 워스토츠니 우주 기지에서 만났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먼저 우주 기지를 둘러보았다. 행사 끝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는 방명록에 "최초의 우주 탐험가들의 나라로서 러시아의 영광은 결코 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의 양자 회담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국 75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는 모스크바와의 관계 발전은 이제 평양의 최우선 과제이며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김정은 정상이 우주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푸틴은 모스크바가 평양의 우주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정은과 함께 워스토츠니 우주 기지를 찾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답했다.

"여기로 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주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대통령이 말했다 (TASS 인용).

워스토츠니를 방문한 푸틴과 김정은은 "소 유즈-2" 발사체의 특성을 숙지하고 발사 단지를

시찰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들은 또한 안가라 발사체 조립을 위해 현대화된 기술실 중 한 곳이 있는 조립 및 테스트 건물을 방문했다. 두 정상은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 유리 보리소브 로스코스모스 대표, 니콜라이 네스테르추크 지상우주 인프라 운영센터 총책임자와 함께했다. 이어서 양국 대표단 간의 회담과 양국 정상 간의 일대일 회담이 이어졌다.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상과의 확대 회담은 1 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러시아 대표단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위탈리 사벨리에브 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에는 최섉희 외무상과 강순남 국방상이 포함되었다.

두 정상은 무역 및 경제 관계, 문화 교류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 문제와 지역 및 세계 무대의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언론매체들에서 발췌)

단신

푸틴, 가스관 연결 필요성 언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월 12일(화) 제8차 동방경제포럼 본회의에서 시베리아와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합하여 국가의 단일 가스 공급 체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극동 프로젝트의 규모는 에너지 시스템의 대규모 확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은 정부에 2050년까지 장기적인 에너지 용량 개발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의 계획은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과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다음 이를 러시아의 통합 가스 공급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랴트 공화국, 자바이칼리에 변경 비료 극동연방관구의 다른 주체에서도 가스화 프로그램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할린 주 두마 의원 보궐 선거 결과 발표

니콜라이 아르쵸멘코가 사할린 주 두마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니콜라이 드미트리예비치 아르쵸멘코가 1,792명(투표 참여 유권자 수의 74.5%)이 투표한 5번 단일제 선거구에서 제8대 사할린 주 두마 의원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 두마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투표 마지막 날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은 제5선거구 전체 유권자 수의 10.05%인 2,296명이 투표했다.

"KAMAZ" 사할린에 자체 센터 개소

동방경제포럼 행사장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주식회사 KAMAZ 안드레이 막시모브 총지배인이 협력 협약에 서명했다.

러시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KAMAZ가 이 지역에 자체 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다. 기계 유지보수 외에도 대중교통을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쿠릴열도 남부에서 규모 4.7의 지진 발생

9월 12일 낮에 쿠릴열도 남부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 온라인 서비스 Equalert.ru에 따르면 약 10km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다. 지진의 진도 1의 영향이 이투롭 섬의 9개 마을과 쿠릴스크 도시까지 퍼졌다.

지역 주민들은 진동을 느끼지 못했다. 지역 인프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한입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자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소련 영웅 김 예브게니 흉상 제막

지난 8일(금) 오후 5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건물 근처에 전설적인 소련 정보장교인 김 예브게니 이와노비치 소련 영웅 수훈자의 흉상 제막식이 있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위탁으로 설립된 부처 간 실무그룹의 결정으로 김 예브게니의 이름은 2023년 불멸의 영웅 명단에 올랐다. 이런 영웅을 기리기 위해 러시아 곳곳에 불멸의 영웅들의 흉상을 세운다.

김 예브게니의 흉상의 제작자는 러시아 연방 보안청의 미술상 수상자인 미하일 바스카코브 조각가이다. 그의 공동 제작자로는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가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논나 라브리크 주문화부 장관 등을 비롯해 주·시 행정부 인사, 문화부 임원, 사할린의 박물관 관장들, 김 예브게니의 친인척, 참전용사들, 원로들, 사회 활동가, 사할린주한인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우리는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의 날과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일을 기념했습니다. 김 예브게니 이와노비치의 가족을 포함해 수만 명의 한인들은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10살에 가족과 함께 사할린에 오게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그의 가족은 여기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할린은 그에게 집이 되었습니다. 예브게니 이와노비치가 나라의 안전을 위해 복무한 것 처럼 수만 명의 사할린 한인들은 나라와 지역의

번영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흉상 제막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가 말하였다.

"김 예브게니는 한 번 선택한 다음에는 끝까지 그 선택에 충실했던 비범한 운명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보안국 직원들은 군인 및 기타 법집행 기관의 직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용감하게 조국을 방어하고 특별 군사 작전의 첫날부터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과거에 감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뛰어난 정보 장교의 영웅적인 삶이 모범이 되어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의 길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조국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러시아 보안청 사할린관리국 국장인 알렉산드르 필로넬 코브가 언급했다.

친척을 대표해 김 예브게니의 조카 김경수 씨는 흉상 작업, 설치에 협력하는 모든 기관들에 인사말을 전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작은아버지와 두 가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하나는 80년대 초기였다. 해외에서 근무한 김 예브게니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기회가 될때 하바롭스크를 통해 사할린에 가려는 길이었다. 그 당시 하바롭스크에 모인 형제와 조카들은 오랜만에 김 예브게니를 볼 수 있었다.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외교관이라고만 답하였다. 친척도 오랫동안 김 예브게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

또 하나의 기억은 조카 김경수 씨



의 아버지인 김 예브게니의 형이 환갑이었을 때였다. 당시 예브게니는 형에게 선물로 멋진 외국제 시계를 선물하였는데, 지금은 이 시계를 조카인 김경수가 보관하고 있다.

조카들인 김경수 씨와 이영자 씨는 흉상에 씌어진 커버를 벗기고 김 예브게니에게 큰절을 올렸다.

김 예브게니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소련의 KGB에서 근무하고 은퇴한 김 예브게니 대령은 한국 경남 거창에서 6남매의 가정에서 막내로 1932년 2월 27일 태어났다. 본명은 김용철이다. 이 이름은 그가 45세 때 러시아 이름으로 개명했다. 1942년에 가족이 가라후토(사할린)의 토로(현 사흐초르스크)로 이주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로 자녀들을 키웠다.

교육에 대한 의욕이 많았고 레닌

그라드국립대학교에 입학하여 일본어를 전공했다. 대학생 시절에 레닌그라드 동물연구소에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생물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 통신으로 생물학을 연구해 이 학과에서도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동양학부의 졸업장도 최우등이었다.

그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물론 러시아어에도 능통했다. 언어 실력은 대단했다.

그는 1960년부터는 구소련 KGB에서 근무했다.

1966년 정보요원으로서, 그는 복잡한 정보 운영 상황을 가진 미지의 나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높은 전문성, 폭넓은 시야, 뛰어난 분석력과 조직력을 보여주었다.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평가되었고, 자신의 업무적 특징은 용감함과 단호함, 냉철함, 사교성, 진취성, 재치와 기지를

들 수 있다."고 대외정보국에서 밝혔다.

귀중한 정보를 전하는 김 예브게니는 이 나라에서 비밀 정보원으로 약 30년 일했다. 사실은 처음 몇 년만 일하다가 되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정보가 중요하다 보니 스스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현재도 김용철이 어느 나라에서 일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기밀이다.

가족과 떨어져 살다보니 러시아인 부인과 사이에 외동 아들이 있었지만, 소년시절에 익사로 죽는 사고 후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 11월 12일에 김 예브게니는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뺑소니)를 당해 사망했다. 근무상 비밀처리로 돼 있는 장례식에는 동포(가족, 친척, 친구) 9명만이 참석할 수 있었다.

묘지에서 돌아온 후 대외정보국 본관 강당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 영웅을 추념했다.

그는 국가로부터 레닌 훈장, 붉은 별 훈장, <조국에 대한 공로> 4급 훈장, <용기에 대한> 메달, <정보국의 명예직원>, <정보국에 대한 근무> 등 메달과 훈장으로 포상되었다.

1987년 12월 21일 소련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원 의회로부터 '공무의 수행에 뛰어난 용기와 영웅주의'에 대해 소련의 영웅 명칭과 함께 레닌 훈장과 <황금 별> 메달 수훈.

김 예브게니의 흉상을 조각한 미하일 바스카코브는 "이 흉상을 3개월 동안 만들었습니다. 흉상은 물론, 이 흉상 받침대에 새겨진 정보 장교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한 쪽에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다른 쪽에는 빛을 보고 나오는 정보원의 모습이죠"라고 하였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사할린의 기업인들, 특허 등록하고, 자체 브랜드를 보호하는 법 배워

사할린 주정부에서 <러시아 지역 브랜드 - 새로운 성장점>이라는 주제로 사업가들을 위한 세미나가 조성됐다. 이에 러시아 특허청의 연방 지적 재산 서비스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세미나를 통해 사할린의 기업인들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왜 이익이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실습에서는 브랜드 특허 신청 방법을 배웠다.

러시아 특허청의 드미트리 트라브니코브 국장에 따르면 지적 표시와 제품 생산지 명칭은 제품과 지역 간의 연계를 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많은 유형의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식료품으로 '볼로고드스 코예' 버터, 예술 도자기 제품으로는 '그젤'이 있다. 사할린에서는 해조류만이 특산품으로 등록돼 있다.

사업가들을 위한 교육 세미나에는 제품 생산자, 여행사 운영자, 서비스 분야 대표들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특산품 지원을 위한 푸틴 대통령 지시 이행의 일환으로 러시아 특허청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교육세미나가 열렸다. 푸틴 대통령은 독자적인 국내 상품 생산과 지역 브랜드 개발은 지역 예산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천이라고 말했다.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научили 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и защищать свой бренд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ся обучающий семинар для бизнеса «Региональные бренды России – новые точки роста». В качестве спикеров выступили специалисты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Роспатента). Остров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узнали, почему выгодно создавать собственный бренд и как его защитить, а в практической части научились подавать заявку на регистрацию бренда.

Как рас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Роспатента Дмитрий Травников,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указание и наименование места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а (ГУ и НМТП) демонстрирует связь между продукцией и регионом, где ее произвели. В России охраняется множество типов такой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К примеру,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 вологодское масло,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промыслы – гжель. На Сахали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только одно НМТП – морская капуста.

В обучающем семинар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50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товаров, туроператор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феры услуг.

Обучающий семинар с экспертами Роспатента прошел в рамках исполнения поруч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 поддержке мест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производство уникальных отече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и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брендов становятся важным источником для пополнен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бюджетов.

츠노사할린스크 <섬 - 물고기> 미식 축제 종료

사할린에서 <섬 - 물고기> 미식 축제가 종료되었다.

9월 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돔 토르그블리' 야외 시장에서는 몇 시간에 걸쳐 물품 판매와 오락 행사가 진행됐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요리사들이 수산물로 만든 음식을 시식하는 것으로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이제 <섬 - 물고기> 축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관광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대표적 행사가 되어 이 행사는 2년간 러시아 우수 미식축제로서 무역산업부의 우수 평가를 받았다.

도시의 날을 맞아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이 행사장을 방문하였고, 시민들을 위해 대접할 음식을 준비한 요리사들과 야외 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선보인 사할린의 기업인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방문객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 가운데 주요 요리는 연어알을 얹은 샌드위치로 커다란 물고기 모양의 틀에 담아 장식됐다.

이 음식 준비에 35kg의 식품을 사용해 요리사들이 사할린 스프와 우동 등 두 가지 특선 요리를 선보인 가운데 음식 준비를 위한 재료로 송어와 연어 약 45kg, 오징어 약 20kg, 조개 10kg이 사용되어 각 요리에 250인 - 300인분이 준비되었다.

첫 <섬 - 물고기> 축제는 2015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작되었다. 행사 프로그램에는 '바다의 선물' 미식 마라톤과 사할린의 기술서비스대학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요리사들의 활동교실 개최, 생산공장 견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년이면 <섬 - 물고기> 축제는 10주년을 맞이한다.

Гастро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рыба» заверши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астро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рыба» завершился на Сахалине. На ярмарочной площадке возле «Дома торгов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9 сентября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часов работали торговые ряды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Кульминацией фестиваля стали угощения, приготовленные шеф-поварами из морепродуктов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годня «Остров-рыба» — визитная карточк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которая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витию туризм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вух лет мероприятие получало наивысшую оценку министерства торговли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ак лучши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России.

Праздник посети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in. Они пообщались с шеф-поварами, которые готовили угощения для горожан, а также с островны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представлявшими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на ярмарке.

Для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было приготовлено угощение. Центральным блюдом стал бутерброд с красной икрой в форме рыбы. На его приготовление ушло порядка 35 кг продукции. Шеф-повара представили два фирменных блюда — сахалинский суп и удон с морепродуктами. Для их приготовления понадобилось порядка 45 кг горбуши и кеты, около 20 кг кальмаров, порядка 10 кг ракушки. Каждое блюдо рассчитано на 250-300 человек.

(8면에 계속)

중국 투자자, 사할린 섬의 생산 시설 개발에 200억 루블리 투자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 주지사와 유이 지하이 쇼우닝 투자관리회사 이사회 의장은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사할린 지역의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회사는 사할린 섬지역의 세 지방 자치체에 200억 루블리를 투자 할 예정이다. 투자자는 티몹스코에 구역에 현대적인 목재 가공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에는 해양 범용 다기능 환적 단지가 조성되고 석탄 채굴도 조직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대형 물류 센터가 세워질 것이다. 이 프로젝트로 지역 주민 400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다.

쇼우닝 투자관리회사의 종합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할린 지역, 급성 호흡기 감염, 폐렴 및 코로나19 발생률 증가

사할린 주에서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병원 외부에서 감염된 폐렴 및 COVID-19 발생률이 증가했다.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서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비자 권리보호감독청 사할린관리국은 보고했다.

지난주 사할린주에서는 1,094건의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주보다 37.3% 증가한 수치이다. 파라 인플루엔자, 아데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및 라이노 바이러스가 원인 균으로 가장 자주 드러났다.

병원 외부에서 감염된 폐렴 발생률은 지난주에 비해 약간 높으며 33건이 발견되었다. 동시에 어린이의 발병 비율은 1.7배 증가했다. 성인 중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11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11배나 증가했다. 어린이에게서 COVID-19가 발견된 사례는 없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 즐거운 도시의 날 보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생일 141주년을 맞아 지난 9월 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서 수많은 행사들이 펼쳐졌는데 중요 행사 중 하나는 '로가트카' 강 둔치 휴식공원 개통식이었다. 이에 사할린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세르게이 나드사진을 비롯해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축사를 전했다. '로가트카' 강변 공원 조성은 전 러시아 도시환경 조성 경연대회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휴식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이곳에서 꽃꽂이대회, 사할린 미술가들의 전시회 등이 펼쳐졌다.

도시의 날을 맞아 많은 행사들이 시공원에서 열렸는데 그중 하나가 김치축제였다. 사할린주협회(회장 박순옥)가 주최자로 나선 축제 행사장에는 약 1000명이 방문했고, 직접 김치 만들기에 250명이 나서서 참가했다. 이들은 사전에 참가신청을 했다고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주춧돌이 이미 마련한 절인 배추, 고추가루, 양념, 파, 무우 등으로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보았다. 다수 참가자들이 러시아인이었고 동포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직접 해놓은 김치를 가져갈 수 있어서 무척 반가워하며 즐거워했다. 김치 만들기 전에는 방문객들에게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이 한국춤의 멋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장에서 사할린국립대 동양학 대학에서 준비한 한국 공예 활동교실들도 펼쳐져 인기가 많았다. 김치 시식을 위해 김치를 담은 컵 700개가 시민들에게 나눠졌고, 이날 김치축제에서 김치 1000 여 킬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또한 '섬-물고기'행사도 시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모저모 기사 - 편집부 주.)

이날 시공원의 여러 곳에서 공연, 민족축제, 어린이축제, 무용축제 등이 펼쳐져 음악소리, 노랫소리가 하루 종일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맑은 날씨에 시민들의 기분도 최고인 듯 경쾌하고 즐거워 보였다.

(시민들과 함께 이날 산책하여 취재를 한 이예식 기자)



리마렌코 주지사, 사할린의 유망 프로젝트 발표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가 "투자-접촉 : 개발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동방경제포럼의 부대행사로 열린 이 행사는 VEB.RF와 스페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업 및 지역 당국 대표들은 극동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를 논의했다. 알레리 리마렌코는 사할린주의 투자 잠재력에 대하여 발표했다. 그는 사할린에 석유와 가스, 석탄, 수생 생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 장점이라고 언급했다. 사할린 지역은 많은 항공 및 해상 노선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동시에 항공 및 해상 운송 인프라가 섬에서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극동 지역에서 가장 큰 공항 터미널이 최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모든 유형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활주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코르사코프 항구의 현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다른 교통 허브도 건설 및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잘 발달된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덕분에 섬 지역은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투자 환경 국가 평가에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할린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

이 기업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병원, 학교,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에 세금을 지불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특수 군사 작전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투자 프로젝트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가 말했다.

주지사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내 투자 분야에 대해 이야기했다. 메탄을 이용해 미생물 사료 단백질인 하프린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제안은 토론 참가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2만 톤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생산량은 늘어날 수 있다. 하프린의 주요 구매자는 러시아 극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농업 기업이 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다른 사할린 투자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는 전체 주기 식물 보호 제품 생산, 어류 및 가축 폐기물에서 콜라겐 생산, 쿠릴열도 내 호텔 단지 건설, 양식업 개발 등이 포함된다.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

■ 서명 취지

- ① 육군사관학교에 건립된 독립전쟁 영웅(홍범도·김좌진·이범석·지정전·이회영)의 흉상 철거 전면 백지화
- ② 독립전쟁 영웅의 흉상 철거를 기획·주도한 책임자 처벌
- ③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에 대한 법제화(항일의병-신흥무관학교-독립군-한국광복군-대한민국 국군)

■ 서명 용도

국회 결의안 채택 요구(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책임자 처벌·국군 정통성 법제화)

■ 서명 기한 : 2023년 10월 6일 (금) 0시

• 제안단체 : 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대한고려인협회

• 연대단체 :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장준하기념사업회·백산안희제선생기념사업회·구파백정기사의기념사업회·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차리석선생기념사업회·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우사김규식연구회·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보재이상실선생기념사업회·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매헌윤봉길월전회·동천남삼복의병장기념사업회·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독립로드·시민모임 독립·한국독립동지회·6.10만세운동유족회·(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조소앙기념사업회·한국광복군유족회 (추후 독립운동 관련 단체 추가 예정)

▶ 관련 기사 : <https://omn.kr/25jc8>

▶ 서명운동 관련 문의: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02-786-8747), 인스타그램 '독립로드' (@kiaquot)

▶ 흉상 철거 반대 1인 시위 참여신청: <https://forms.gle/8Wzb9WDQg3HjEJ89>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 단 1cm도 옮길 수 없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 이전 백지화를 위해 **다함께 의쳐요!**

- 100만 서명으로 흉상철거 막아내자!
- 모욕적인 흉상철거 장군님이 한탄한다!
- 흉상철거 주도하는 국방장관 사퇴하라!
- 반역사적 반민족적 친일행위 중단하라!
- 철지나간 이념논쟁은 온국민이 분노한다!

■ 서명 취지

- ① 육군사관학교에 건립된 독립전쟁 영웅(홍범도·김좌진·이범석·지정전·이회영)
- ② 흉상 철거를 기획·주도한 책임자 처벌
- ③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에 대한 법제화(항일의병-신흥무관학교-독립군-한국광복군-대한민국 국군)

■ 서명 기한 : 2023년 10월 6일 (금) 0시까지

지금 바로 서명하기 QR코드 스캔

제안단체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대한고려인협회
연대단체 :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장준하기념사업회·백산안희제선생기념사업회·구파백정기사의기념사업회·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차리석선생기념사업회·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우사김규식연구회·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보재이상실선생기념사업회·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매헌윤봉길월전회·동천남삼복의병장기념사업회·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독립로드·시민모임 독립·한국독립동지회 (독립운동 관련 단체 추가 예정)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бюст Герою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ю Киму

Бюст легендарному советскому разведчику откры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Имя Евгения Кима внесено в сводный список на увековечивание в 2023 году решением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созданной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Будущий выдающийся советский разведчик родился в 1932 году в городе Кочхан (нынешняя провинция Кёнсан-Намд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крестьянской семье. При рождении получил имя Ким Ен Чер. Отец рано умер, и детей в одиночку воспитывала мать. В 1942 году семья перебралась на Сахалин, в посёлок Торо (в 1947 году переименован в Шахтёрск). Ким окончил семь классов школы и ушёл работать техником, занимаясь при этом вечерам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скоре его вернули в школу, приняв в девятый класс. В 1953 году Ким получил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В 1960 году окончил восточный факультет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японская филология». Владел японским, корейским, английским и испанским языками. В 1960 году зачислен в особый резерв Первого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ГБ СССР. В 1966 году в качестве разведчика – нелегала выведен в страну со сложной агентурно-оперативной обстановкой. Зарекомендовал себя опытным работником, отличавшимся высоким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ом, широким кругозором, хорошими аналитическими и организаторски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В особых условиях работал до 1989 года. Успешно руководил созданной при ег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участии автономной нелегальной резидентурой.

За достигнутые результаты в служ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роявленные при этом мужество в 1987 году удостоен звания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ами Ленина,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Красной Звезды, «За заслуги перед Отечеством», медалью «За отвагу», нагрудными знаками «Почетный сотрудник гос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а службу в разведке», ведомственными знаками и медалями.

Трагически погиб в Москве в результате ДТП в 1998 году.

– Буквально недавно мы отметили День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оторая унесла миллионы жизней. Десятки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оказались вдали от Родины, в том числе семья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В возрасте 10 лет он оказался на Сахалине. После войны семья его осталась здесь и Сахалин стал родным домом для него. Десятки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рудились на благо региона и страны, как и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оторый трудился на благо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раны. Спасибо всем причастным к открытию бюста, – отмет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Это был человек необыкновенной судьбы, который однажды сделав свой выбор, остался верен

ему до конца и стоял на страже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раны. Сегодня, когда перед наш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стоят новые вызовы, сотрудники орган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плечом к плечу с военнослужащими и сотрудниками других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с первых дней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мужественно защищают Родину и исполняют свой долг. Мы умеем ценить настоящее и прошлое. Уверен, что героическая жизнь и пример судьбы выдающегося разведчика поможет молодежи правильно проложить свой жизненный путь и найти себя в служении Отечеству, – отметил начальник У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Филоненков.

– Он всю жизнь служил той стране, которая дала ему образование. Я читала, что однажды он сказал своим ученикам, чтобы быть разведчиком-нелегалом, надо любить свою страну и ту, в которой ты работаешь. Я уверена, что родины он считал Советский Союз. Сегодня очень знаковый и приятный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ень, потому что мы должны помнить героев, – обратилась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На открытии бюста присутствовал автор скульптуры, лауреат премии ФСБ России в области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 Михаил Баскаков. Соавтором скульптуры выступил помощник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 Мединский. Почетное право снять завесу с монумента предоставили племяннику разведчика Ким Ген Су.

Отметим, программа по увековечению памяти лиц, внесших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защиту России в различ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периоды,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была создана в 2020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помощник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Мединского. В состав комиссии вход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Минобороны России, ФСБ России, Генпрокуратуры, Российского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Российск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Ранее комиссия согласовала список из 19 лиц, безусловно достойных увековечения. В 2021-2022 годах в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 от Владивостока до Крыма –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го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по установке и открытию памятников и мемориальных досок. В этом году в сводный список на увековечивание внесен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Гер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олковник КГБ СССР, выдающийся разведчик-нелегал.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лавы России и КНДР встретились на космодроме Восточный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встретились 13 сентября на космодроме Восточный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сообщает ТАСС, сначала для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была проведена экскурсия по космодрому. По её окончании лидер КНДР написал в книге почётных гостей: «Слава России как страны первых покорителей космоса никогда не померкнет». Затем состоялась часть дву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Ким Чен Ына, открытая для прессы.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отметил, что его встреча с Ким Чен Ыном проходит в «особое время», когда КНДР отметила 75 лет своего создания, и отмечается 75 лет со дн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заявил в ответ, что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с Москвой сейчас является главным приоритетом для Пхеньяна, и встреч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должна поднять их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 лидером КНДР Ким Чен Ыном заявил, что тот проявляе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космическим технологиям.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журналистов, будет ли Москва помогать Пхеньяну строить космические спутники, Путин сказал, что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он и Ким Чен Ын приехали на космодром Восточный. «Мы поэтому и приехали сюда. Лидер КНДР проявляе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ракетной технике, они и космос пытаются развивать», –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цитата по ТАСС). Путин и Ким Чен Ын при посещении Восточного ознакомились с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Союз-2» и осмотрели стартовый комплекс для нее, передает агентство. Они посетили монтажно-испытательный корпус, где одно из технических помещений модернизировали для сборки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Ангара». Лидеров сопровождали вице-премьер – полпред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глава «Роскосмоса» Юрий Борисов и гендиректор АО «ЦЭНКИ» Николай Нестечук. После этого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делегаций и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один на один. Их содержание не раскрывается.

Переговоры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 лидером КНДР Ким Чен Ыном в расширенном составе продлились более часа. В российскую делегацию вошли в том числе глава МИДа Сергей Лавров,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Сергей Шойгу и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Виталий Савельев;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 министры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 обороны Цой Сон Хи и Кан Сун Нам.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и культурные обмены, а также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и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По материалам СМИ)

Блюдо солнечного цвета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объединил людей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Без этого самого изве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блюда не обходится ни одно традиционное застолье у корейцев всех частей света. И это блюдо отличается не только ярким вкусом и запахом, но и цветом. Кимчи, наверное, сродни славянским блинам: по цвету и форме блины ассоциируются с солнцем; солнечными цветами окрашиваются и листья пекинской капусты, её вместе со специальной перцовой пастой используют как основной ингредиент.

Радостный момент приготовления вкусного блюда.

На мастер-классе в парке под рукой всё необходимое. Подносы с просоленной пекинской капустой, редькой и чесноком старательно подготовлены член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Женщины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а с ними и студентки кафедры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островного вуза, проходят между рядами столов и помогают советами, в какой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нарезать чеснок и белую редьку. Рядом со мной те, кто не раз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 и те, кто впервые имеет та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К примеру, ученица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с радостью говорит, что ей так не хотелось идти на фестиваль, а сейчас она довольна и вернется домой с коробочкой собственноручно приготовленной кимчи.

В первый раз на таком мероприятии оказалась и десятилетняя Люба из школы № 3. Девочка пришла на праздник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и сейчас усердно растирает по каждому листку капусты перцовую пасту. Говорит, сама кимчи не ест, но блюдо любят родители.

Не остались в стороне и те, кто не имел специальных приглашений на фестиваль (к сожалению,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ограничено). Они отвечали на вопросы викторины о кимчи, и знатоки даже выиграли большую коробку традиционного блюда с острым перцем. А еще всех желающих здесь щедро угощали эт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блюдом.

Интересно, что без отсылок к кимчи невоз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ни один современный 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поклонники которых есть и на Сахалине.

«Всё дело в кимчи» – так называется многосерийный 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стартовавший в 2014 году. Его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чтобы наладить личную жизнь, начинает бизне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имчи. Но если присутствие этого



продукта в эпизодах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предсказуемо, то обращение к этому блюду в фильмах, снятых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сегда будет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В 2017 году в Малайзии на экранах появился фильм «Кимчи для тебя». Это история о студенческих годах, любви и надеждах, страданиях и избавлении от них. Но начинается фильм с приготовления главной героиней кимчи в качестве приветственного подарка для президента одной компании.

А в 2019-м во Франции была снята комедия «#Я здесь», главные события которой завязаны на возникшей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влюбленности повара Стефана в милую кореянку. Желая скорее встретиться с виртуальной подружкой, мужчина прилетает в Южную Корею, где ему удается узнать и вкус кимчи, и открыть новое для себя слово «нунчи», означающее способность предугадывать чувства и ожидания другого человека. А чтобы хорошо получиться на фотографии, герои киноленты, глядя в камеру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оизносят громко и растягивая по слогам слово «кимчи».

Это же слово чаще других звучало в субботний сентябрьский день и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сем хотелось запечатлеть радостный момент приготовления вкусного блюда вместе с друзьями и родными.

А в завершение хочется напомнить, что не стоит начинать есть кимчи с рассола. Так обычно говорят корейцы тем, кто, не дожидаясь главного, довольствуется малым. Принесенное домой блюдо должно ещё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ропитаться перцовой пастой, и тогда его уже можно подавать к столу.

Готовила и уже продегустировала кимчи Елена Белобережская.
Фото: Ли Е Сик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КНР и Япония будут расширять культурные обмены

РК, Япония и Китай будут сотрудничать в целях расшир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жителями соседних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олодёжи и на уровне регионов. Они будут стремиться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 к культурным ценностям людя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и реш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блемы с культур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Данные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в совместной декларации, которую подписали 8 сентября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Японии Кейко Нагаока и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Китая Ху Хэпин. 14-я встреча министров культуры трёх стран состоялась в городе Чонджу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Пукто. Министры договорились также укреплять связи между учреждениями культуры, такими как музеи, библиотеки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галереи, расшир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индустрии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тента.

Samsung Electronics не вошла в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й список ЕС

6 сентября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представил список компаний-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электроники, которые подпадают под действие Закона о цифровых рынках, вступающего в силу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Он нацелен на создание более безопасного цифров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пользователей и защиту их прав в интернете. Кроме того, европейские власти надеются обезопасить европейский рынок от иностранных монополистов, предотвратив неконтролируемый рост их влияния. В список включены 22 сервиса шести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Alphabet, Amazon, Apple, ByteDance, Meta и Microsoft. Обращает на себя внимание то, что пять из них американские. Отныне им запрещено предоставлять более выгод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своих продуктов и услуг на управляемых ими интернет-площадках. Кроме того,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личных данн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 коммерческих целях. Нарушение этих и других ограничительных правил повлечёт крупные штрафы в размере до 10% общего объёма продаж. При повторном нарушении размер штрафа может быть увеличен вдвое. Переходный период для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новых правил составит полгода. В этот период компании, вошедшие в список, должны обеспечить соблюдение полного перечня требований и запретов. Из списка исключены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Samsung Electronics и несколько сервисов, включая Gmail и Outlook. Ожидается, что Закон о цифровых рынках создаст равные конкурен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небольших стартап-компаний.

В августе в РК созданы 268 тыс.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собр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ым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численность занятого населения РК составила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28 млн 678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268 тыс.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Рост занятости, как и в предыдущие месяцы, достигнут в основном за счё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и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й. Так в категории старше 60 лет создано 304 тысячи, а от 50 до 59 лет – 73 тысячи рабочих мест. При этом занятость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29 лет сократилась на 91 тысячу человек.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чих мест в сегменте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увеличилось на 138 тысяч, в гостиничном и ресторанном бизнесе - на 121 тысячу, в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 секторе - на 57 тысяч.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нятость в розничной и оптовой торговле сократилась на 69 тысяч, в промышленн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 тоже на 69 тысяч человек.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составил 63,1%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от 15 до 64 лет. Это на 0,3% больше, чем в том же меся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Уровень безработицы составил 2%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снизившись за год на 0,1%. В августе в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573 тысячи безработных, что на 41 тысячу мен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В Сеуле появится единый проездной билет

В Сеуле появится единый проездной билет на все вид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 его помощью можно будет оплатить проезд в метро и автобусах, а также прокат велосипедов. Как сообщил на брифинге 11 сентября мэр Сеула О Сэ Хун, пользоваться такими билетами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можно будет с начала 2024 года. Залоговая стоимость пластиковой карты составит 3 тыс. вон (2,25 доллара). На неё будет вноситься сумма 65 тыс. вон (48,75 доллара) в месяц. Карта будет доступна также в формате мобиль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По подсчётам экспертов, новый единый проездной билет снизит финансовую нагрузку на жителей Сеула, позволив им сэкономить в среднем 340 тыс. вон (254 доллара) на человека в год. Система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с января по май будущего года. После анализа результатов будут исправлены ошибки, затем во втором полугодии начнётся полномасштабная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единых проездных билетов. Позднее в список видов транспорта, оплата за пользование которым покрывается единым проездным билетом, планируется внести речной транспорт. Он будет введё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анный проект, как ожидается,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овышению спроса на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поможет сократить выбросы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примерно на 32 тыс. тонн в год.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17% общих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 Сеуле приходится на личный легковой транспорт. (RKI)

В Пусане прошл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KOWIN

С 6 по 8 сентября в Пусане проходила 22-я конференция Kowin

Kowin - это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на которой корейские женщины со всего мира обсуждают насущные проблемы и обмениваются опытом продвижени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ервая конференция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в 2001 году и с тех пор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0 000 женщин из 22 стран.

Темой форума в этом году была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эпоху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Я впервые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 конференции такого уровня, мне был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Посомневавшись, я написала заявку на выступление, и к моему удивлению, мой доклад одобрили.

В первый день выступали основные спикеры и это было очень захватывающе.

Успешна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ница рассказывала об экономике, о применении биг-дата в построении финансовой модели бизнеса.

Деятель из киноиндустрии рассказывала о самых кассовых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ах и сериалах, например,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и о том, как используется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в создании конкурентных продуктов.

Молодая девушка рассказывала о социально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е, о том, как она привлекает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в сферу IT и этот проект «вы-

стрелил» в пандемию.

На второй день проводились круглые столы по заявленным темам. Мое выступление был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в секции «Культура». На выступление отвели 10 минут.

Текст мо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вы можете прочитать ниже. Организаторы вносили поправки в него до последней минуты, убрали упоминание о проблемах, смягчали формулировки.

Мы готовились всей командой. Арина Бек, учитель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исправляла мои ошибки в английском, Ольга Ри переводила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давала советы как сделать речь более выразительной, Де Сун Де снимала видео.

Конечно же, я волновалась – будет ли интересна женщинам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местен ли будет мой рассказ сейчас? Как воспримут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уме?

Я получила ответ сразу ж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закончила говорить. Женщины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обращались ко мне с самыми искренними словами. Они говорили о том, как сердцем прочувствовали нашу историю, как близка она им, как понятна. Взрослые женщины рассказывали свои порой очень личные истории, всех переполняли эмоции.

Очень сильно затронула слушателей тема идентичности корейцев. Как, проживая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сохранить культуру и традиции

предков? Удалось ли это российским корейцам? Говорят ли наши дет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важно ли это?

До конца конференции ко мне подходило множество людей. Меня останавливали по дороге на ужин и в лифте, последний разговор был в автобусе по дороге на вокзал. Давали визитки, просили записать телефоны, приглашали на следующую конференцию.

Было много сожалений, что книгу нельзя купить в бумажном виде, пусть даж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Говорили, что книгу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должны прочитать во всем мире. Спрашивали, могут ли они в этом помочь.

Я часто слышу этот вопрос – где можно купить мою книгу?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расчеты показывали, что стоимость книги превысит 1500 рублей. Бумага подорожала в три раза, стоимость доставки тоже. Это очень дорого – решила я, - сейчас никому не до книг. Но после конференции подумалось – может быть и правда нужно переиздать книгу? Ведь не хлебом единым жив человек.

Конференция Kowin-2023 была очень значимой для меня. Я поняла, что никак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различия и даже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не являются препятствием, если ты искренен и открыт. Это был потрясающий опыт.

Виктория Цой

Выступление писательницы Виктории Цо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KOWIN в Пусане

Добрый день! Меня зовут Виктория Цой, я писательница из России, родилась и живу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Я сказала, что меня зовут Виктория, но это не настоящее имя. Мое имя – Ок Сун, так меня назвала бабушка. Ей было 16 лет, когда она приехала на Сахалин. Тогда остров был частью Японии.

В 1905 году Россия проиграла войну Японии и южная часть острова стала новым губернаторством. Оно называлось Карафуто. Для освоения новых земель нужна была рабочая сила. И японская империя вывезла из Кореи тысячи молодых людей. Они работали в шахтах, заготавливали лес, строили дороги, фабрики и аэродромы. Это была очень тяжелая жизнь. Они работали по 16 часов в день. За невыполнение плана их отправляли в тюрьмы «такобея» и оттуда не выходили живыми.

В 1945 году закончилась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и Япония объявила о своей капитуляции. И тогда японцы стали спешно покидать остров. Но тысячи корейцев остались на острове, их просто бросили и они больше 50 лет не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Мои дедушки и бабушки были одними из них.

Я родилась в СССР. Это была эпоха железного занавеса, и в семье почти не говорили о прошлом. В паспорте у меня было корейское имя, но я предпочитала, чтобы меня звали по-русски. Я училась в русской школе. Последнюю корейскую школу закрыли задолго до моего рождения. Я не зна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своих дедушек и бабушек почти не понимала.

В 90-е годы в СССР началась перестройка, в стране начались большие изменения. Россия и Корея восстанови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тогда наконец наши старики смогли поехать на родину. Не все, те – кто дожили до этого счастливого дня.

С тех пор многое изменилось. На Сахалине есть школы, где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оводятся фестивал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есть корейское телевидение и газета. И связи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не прерываются. Принята спец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пересел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Корею. В городе Ансан построен целый микрорайон.

Вот об этом, о судьба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я и написала роман.



Он называется «Когда я буду морем». Наши старики просили перед смертью, чтобы их кремировали и развеяли прах над морем. Они надеялись, что хотя бы так их частичка доплывет до далекой роди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оя книга выиграла сахалинский литературный конкурс и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Это моя первая книга и оказалось, что наша история интересна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цам, такие ценности как любовь к родине, к родителям, стойкость, преданность,

желание лучшей доли для детей – это универсальные ценности.

Тираж книги был раскуплен за два месяца. Книгу покупали в подарок, отправляли родным в другие города и даже страны – в Узбекистан, Казахстан. Книга была отправлена в библиотеки нашего острова и мне говорили, что читатели ждали своей очереди, чтобы ее прочитать.

Россия – моя родина, здесь я родилась и выросла. Корея – вторая моя родина, это место, куда до последних дней мечтали вернуться мои дедушки и бабушки, мои родители сейчас живут в Инчоне.

Я не могу выбрать, какая из двух стран важнее для меня. И думаю, что и не нужно. Мне кажется правильной концепци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сти, когда вы сохраняете традиции, но и вбираете лучшие достижения других культур. Я соблюдаю обычай уважения к старшим, делаю кимчи и не представляю себя без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еще про взаимосвязь. Моя подруга дала почитать роман своему коллеге, и он решил, что нужно снять фильм. Я сначала не поверила, что он говорит серьезно. Никто из нас никак не связан с кино. Но он нашел телефон од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и сейчас мы обсуждаем сценарий фильма. Каждый раз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звонков мне требуется время, чтобы поверить, что все происходит в реальности, что мы правда – обсуждаем сценарий фильма по моей книге. Это удивительно!

Но разве не для этого нужны литература и кино – чтобы объединять людей? Мы живем на одной планете и мы все взаимосвязаны.

Спасибо вам за внимание!

Повышение предельного размер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и» подстегнет рынок жиль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держал предложение, которое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звучил, выступая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о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ло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11-13 сентября.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тметил, чт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действуют специальные условия по ипотеке: сумма – до 6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рок – до 20 лет, ставка – два процента. С помощью этого инструмента более 78 тысяч семей уже приобрели или построили новое жилье.

– Предлагаю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параметр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и, повысить 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мы вчера с коллегами тоже об этом говорили, а именно: поднять верхнюю планку кредита до 9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для тех, кто желает приобрести свое жилье площадью свыше 6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у семей будет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выбора квартиры на первичном рынке или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бственного дома. Добавлю, что изначальн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была рассчитана только на молодые семьи, но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акой кредит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се учителя и врачи, работающи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едложил увеличить охват этой программы, сделать ипотеку под два процента доступной и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оборо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х возраста и семе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Также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ручил подготовить нормативную базу для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менения эскроу-счетов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В этом случае механизм расчетов выстроен так, что при возникновении у застройщика проблем с завершени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ома покупатель жилья сможет вернуть уплаченные деньги.

–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сегодня вернулся разговор 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е». Ее расширяют до 9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ажно для людей, потому что позволит тысячам семей решить свой жилищный вопрос. Еще одно важное реш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о применении эскроу-счетов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Его давно ждали. Этот механизм защитит интересы простых граждан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будет стимулировать стройку. Люди, зная, что их деньги не пропадут, будут охотнее вкладывать их в новое жилье. Реализация предложений,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озвучил Президент, станет стимулом для нашей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и смежных с ней, дл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много внимания уделил итогам десяти лет работы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а эти год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рамках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х режимов инвестиции составили 6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Создано свыше 5 тысяч рабочих мест. Общи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составит более 13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 около 9 тысяч.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ны крупные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е и тепличные комплексы,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ивают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мясом, молоком, овощами. Глав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объект региона –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Горный воздух» – стал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поклонников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также была введена особая преференциальная зона. По реш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на 20 лет обнулены налоговые ставки. И теперь курильские резиденты реализуют проекты в разных отраслях: туризм, добыча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переработка отходов. Также сейчас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чин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Его задача – готови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кадры для перед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региона. Это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молодым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олучить востребова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и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 социальные лифты для островной молодеж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цель которого – создать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личностно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молодых граждан. Церемония состоялась в рамка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10-13 сентября. Документ подпис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НО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Алексей Агафонов.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была созда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2018 году. Ее миссия – создавать будущее России, открывая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каждого. Платформа помогает человеку,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где он живет, какую профессию выбрал и в какой семье вырос, получ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воего развития. За 5 лет платформы участниками её 26 проектов стали 20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Они смогли най-

ти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и завести полезные знакомства, поступить в вуз или пройти перспективную стажировку, найти работу мечты, продвинуться в карьере, выиграть грант.

– Чтобы область становилась богаче, нужны не только природные ресурсы. Не менее важно дать людям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таланты и способности. Успешный человек увеличивает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семьи, родного региона, укрепляет экономику страны. Поэтому в рамках подписа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вместе с организацией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мы будем развивать социальные лифты для наших земляков, создавать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личностно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молод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отмети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Документ предполагает всестороннюю взаимную поддержку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 рамках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ектов и конкурсо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и сопровождения их участников. В частности, соглашение позволит не только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сить уже достигнутый уровень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о и предложить новые форматы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по поддержке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проведению совместных конкурсов, проектов и мероприятий.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является давним и надежным партнером нашей платформы и вносит весомый вклад в создание всех необходимых условий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ов и конкурсов платформ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5 лет выросло колоссально – в 57 раз – с 754 человек в 2018 году до 43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Это серьезный показатель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молодежи и профиль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региона в раскрытии своего таланта и приобретении новых навыков. Сегодня в рамка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мы выводим наш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подписывая соглашение. Это позволит развивать уже достигнутые результаты, эффективно работать в направлении постконкурсного сопрово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танет надежным подспорьем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в наши проекты новых участников, откроет для них более широкие перспективы,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НО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Алексей Агафонов.

Благодаря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луч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участия в федеральных конкурсах «Лидеры России», «Это у нас семейное», проекты «Мастера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Цифровой прорыв. Сезон: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клуб Лидеров России «Эльбрус», «Флагманы образования»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4 нов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 появи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завершились в Анивском и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ах. Эти объекты поддержало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ход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До конца года в регионе сдадут не менее 20 нов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Лидером по числу преобразованных объектов стал Макаров. Здесь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или сквер «Без пяти семь», пешеходная улица 50 лет Октября, также появилась Аллея первых свиданий. На объектах проложили новые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высадили газоны, кусты и деревья, установили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и освещени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заверши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сквера. Пространство станет зеленым местом для отдыха с беседками и перголой с качелями.

В Аниве новым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стал обновленный сквер Дружбы. Здесь выполнили озеленение, уложили покрытия, установили освещение и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или доступ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 Мы и раньше приходили сюда с семьей. Теперь ходим чаще, ведь вокруг стало чисто и уютно, глаз радуется.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ответственнее относились к новому месту отдыха, не ломали оборудование, ведь все это делае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нашего комфорта,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Анивы Татьяна Щетинина.

На завершающую стадию вышл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зоны отдыха «Перекоп» в Ногликах. Здесь совсем скоро появится площадка для пляжного волейбола, территорию уже разделили на зоны и отсыпали. Ведется устройство ограждений между парковочной зоной и зоной отдыха, установка качелей, беседок и устройство площадок для мусорных отходов.

На финишную прямую вышли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а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хе, Поронайске, Холмске и Южно-Курильске. Так, в Охе завершается устройство обелиска, сооруженного в честь 40-летия освобож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В Поронайске в рамках обустройства места отдыха в районе «Рефилеры» необходимо закончить установку детского и спортив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парке Победы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осталось завершить установку малых архитектурных форм, освещения и ограждения.

– Прделана огромная работа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город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переди множество планов, идей и проектов. Все это становится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нацпроекту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Благодаря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 каждом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создаются уютные, комфортные и красив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ся парки, скверы, набережные. Отрадно, чт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е стал исключением, –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Так, начиная с 2019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или порядка 130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этом году будут сданы не менее 20 объектов, победивших в голосован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тметим, в 2023 году более 54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голосовании по выбору территорий и дизайн-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амыми активными стали жители Анив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и Смирн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В этих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реализуют по два проекта в 2024 году.

Напомним, нацпроект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реализу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проекта – преобразить российские города, поселки, сделать их комфортнее для людей, дать нов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Компания «Гидрострой» построит крупный комплекс по переработке рыбы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морском порту

Четырехстороннее соглашение, посвященное созданию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морском порту нового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комплекса компании «Гидрострой», подписано на поля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10-13 сентября. Подписи под документом поставили министр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ей Чекунк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О «Гидрострой»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корпоративным и социальным проектам Людмила Шапка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Николай Запрягае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ла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чинают модернизацию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Здесь будет проведе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ричалов, дноуглубление, созданы защи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Также в порту появится самый современный рыбный кластер. В нег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дписанным соглашением, войдет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й комплекс компании «Гидрострой» мощностью до 500 тонн сырья в сутки с жиромучной установкой,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ля выпуска филе и холодильником на 5000 тонн продукции. Инвестор вложит в проект 6,5 млрд рублей, создаст 250 рабочих мест.

– Воды вокруг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богаты ценными водными биологическими ресурсами. Этот потенциал необходим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интересах жителей нашей области,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Чтобы эта работа была успешной,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современную портов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которая обеспечит максимально быстрый прием уловов, чтобы не терять в качестве. Нужны современные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мощности, холодильники, чтобы выпускать именно ту продукцию, которая требуется современному потребителю. Тогда наши рыбаки будут разгружать свои суда на Сахалине, а не в Корею или Китай, здесь буду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налоги и создаваться рабочие места. Именно на это направлено наш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омпанией «Гидрострой», наши усилия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 Новый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й комплекс в Корсакове обладает особыми преимуществами. При е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будут применены не только 30-летний отраслевой опыт холдинга «Гидрострой», но и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отработанные нами на построенных и уже действующих крупнейших в России РПК «Крбозаводск» на Шикотане и «Ясный» на Итурупе.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это уже хорошо отлаж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и теперь Корсакову предстоит принять эстафету. Мы уверены в результате. Кроме того, этот проект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не только как инвестиции в региональную экономику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ной территории. Новому предприятию потребуются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самых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Мы готовы принять на практику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получают образование в отраслев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ак что это ещё и вклад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вклад в будущее,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О «Гидрострой»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корпоративным и социальным проектам Людмила Шапка.

Проект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реконструкцию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их сооружений, дноуглубл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эксплуатацию ряда промышленных объект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기드로스트로이", 코르사코브 항구에 대규모 생선 가공 단지 건설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 경제 포럼의 일환으로 코르사코브 항구에 "기드로스트로이"회사의 새로운 생선 가공 단지 조성에 관한 4자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서에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북극개발부 장관 알렉세이 체쿤코브, 사할린 주정부 총재 알렉세이 벨리크, 기드로스트로이"주식 회사의 홍보, 기업 및 사회 프로젝트 담당 부대표 류드밀라 샤프카, '극동 및 북극 개발 공사'회사 대표이사 니콜라이 자프라가체브가 서명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현재 사할린 지역 당국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코르사코브 항구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정박지를 재건하고 준설을 실시하며 보호 구조물을 만들 것이다. 항구에는 최첨단 어류 클러스터도 조성될 예정이다. 체결된 계약에 따라 그리스 공장, 생선 순살 생산 장비 및 5000톤의 제품을 보관할 냉장고를 갖춘 하루 최대 500톤의 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드로스트로이"회사의 생선 가공 단지가 포함될 것이다. 회사는 이 프로젝트에 65억 루블리를 투자하고 2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Истори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и ученые выступили против решения о переносе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Истори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и ученые выступили против решения о переносе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за пределы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и призвали отказаться от этого плана.

Пятьдесят одна организация, включая Корейскую историческую ассоциацию, Институт истории и Истор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овели в среду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в кампусе Кванак Сеуль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опубликовали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против демонтажа и переноса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Войска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Хон Бом До, участвовавшие в боях под Понондоном и Чхонсанри, были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ны Времен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зданным после Движения 1 марта, и были главными действующими лицами в Войн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 заяв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рупп.

В отношении критики, связанной с членством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в совет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они заявили: «Они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это было проблемой, потому что он вступил в советскую коммунистическую партию, но коммунизм был способом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Историки выразили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по поводу демонтажа и перемещения бюста.

«Мы глубоко обеспокоены тем, что демонтаж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серии «отрицаний истории», — заявили они, потребовав «немедленно отменить план по демонтажу (перемещению)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армейского кампуса».

«Ныне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ытается сделать акцент только на истории основания страны, во главе которой стоит Ли Сын Ман, как на ортодокс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и, и исключить историю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торая отличается от нее», — заявили они, добавив: «Не используйте больше историю в политике».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к «Движению сбора миллиона подписей против сноса памятников героев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ереходите по ссылке:

— русский язык — <https://forms.gle/Nhk7QVCUXktzLdav6>;

—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https://forms.gle/FrowowBdXkCfBzJa8>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начали движение сбора миллиона подписей против сноса памятников героев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начинают движение сбора миллиона подписей против сноса памятников героев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 Цели сбора подписей

① Полное прекращение сноса памятников героев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Хон Бом До, Ким Джа Чжин, И Пом Сок, Чжи Чхон Чхон, И Хё Ён), установленных в Академии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② привлечь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лиц, причастных к планированию и руководству сноса памятников героев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③ Закрепле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базы для легитимизации того, что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едут свою историю от Арм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Шинхын", Армии Независимости.

■ Сбор подписей направлен на

Требование принятия резолю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екращение сноса памятников героев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ривлечение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ричастных лиц, закрепле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базы для легитимизации истории ВС РК).

■ Срок сбора подписей: до 0:00 часов 6 октября 2023 года (пятница).

•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щество по увековечиванию памяти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Общество по увековечиванию памяти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Шинхын", Общество по увековечиванию памяти И Хё Ён,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Организации партнеров: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33 Лидеров Нации,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Чосон Ильдан,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генерала Чхве Ун Сана,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Чан Чжун Ха,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Ан Хи Чже,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Пяк Чон Ги,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Неустрашимых воинов света,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женщин-патриотов,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Ча Ри Сок,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Ю Чон и Чо Дон Хо,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Ким Сон Сук из Унам, Общество исследований Ким Гю Сик,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Ан Чжун Гын,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И Сан Соль,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Е Ун Хен,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Пак Чжэ Соль,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Юн Бон Гиль,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Нам Сан Мок, Общество памяти Ким Сан Ок, Общество Пути к Независимости.



Участники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совместному заявл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отив переноса бюста Хон Бом До, в Сеульск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13 сентября утром. Yonhap

한국의 발전상과 역사, 문화 등을 재외동포 비롯한 전 세계에 알리는데 협력키로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한국의 발전상과 역사, 문화 등을 재외동포를 비롯한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월 11일 밝혔다.

반크(VANK :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는 세계 속 한국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 네트워크 단체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해외에서 나고 자라 거주국에 동화되고 있는 차세대 동포들에게 뿌리인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국가라는 사실을 알려 한민족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함께 인식하면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기관은 한국의 발전상 등을 재외동포 거주국에 널리 알리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국내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각국에 거주하는 차세대 재외동포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는데 함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

치·경제 발전상을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 한글학교 교사 대상으로 차세대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등 교육 ▲외국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 수록 지원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활동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차세대들의 주류사회 진출 지원이라는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2개 핵심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소재"라면서 "오랜 기간 민간 외교사절단으로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온 반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및 재외동포사회의 역량을 결합한다면 더 많은 국가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과 중요한 공공외교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 기쁘다"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동포청과 함께한다면 전세계 차세대 동포들이 동참하는 데 있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 진출국제도' 연말까지 시행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무부는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법무부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해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이번 제도 시행 대상에서 제외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고 입국금지가 강화된다.

오는 10월 중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확립"이라며 "앞으로도 정부합동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한림대성심병원, 안산시 어르신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 의료 지원

한림대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이 최근 경기남부권연지원센터와 함께 안산시 고향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러시아 사할린 귀국 동포 어르신 102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고향마을 아파트'는 지난 2000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시범사업으로 건립된 사할린 한인전용 아파트로 현재 약 480세대 770여명의 사할린 동포 및 가족들이 거주 중이다.

이번 건강검진은 성심병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러시아 사할린섬으로 강제 이주된 조선인 후손들이 모인 고향

마을 입주민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그들의 건강증진과 마음 치유를 모색하고자 기획했다.

이승대 성심병원 행정부원장은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후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영주 귀국하게 된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무료건강검진 의료지원을 시작으로 안산시와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동포 여러분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뉴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рыба»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2015 году. Программа мероприятия включает несколько событий: гастромарафон «Дары морей», мастер-классы от шеф-поваров для студ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и молодежи, экскурсии на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стров-рыба» отметит свой 10-й юбилей.

сахалин 여성 3명, 친척과 친구 사칭 사기꾼에게 90,000루블리 이체

сахалин 여성 3명이 보이스포심범들에게 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친척과 친구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돈을 꾸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сахалин주 내무국이 밝혔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의 35세 여성이 9월 6일 경찰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익명의 사람이 피해 여성에게서 3만5천 루블리를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저녁 7시 40분쯤 사촌의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카드 결제 한도가 끝나 인터넷 주문 결제를 할 수 없다며 몇 시간 내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피해 여성은 그에게서 이체를 위한 계좌번호를 받아 돈을 이체했다. 이후 다시 사촌이라 사칭한 사람이 5만5천 루블리를 빌려달라고 해서 피해자는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답했다.

나중에 피해 여성은 사촌의 메시지가 해킹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하루 전날 경찰청에 2개 지역에서 유사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코르사코브에 사는 32세의 남성이 사기꾼에게 3만4천 루블리를 이체한 사건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자친구 전화번호의 메시지로 몇 시간 내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아 피해를 당했다.

네웰스크의 40대 여성은 같은 수법으로 1만7천 루블리를

빼앗겼다. 9월4일 피해 여성은 여동생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돈3만4천 루블리를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곧 1만7천 루블리를 여동생이 전송한 번호로 이체했다. 이후 메시지로 돈을 더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를 의심한 피해 여성이 여동생에게 직접 전화해 묻자 여동생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사건들은 모두 범죄사건으로 기소되 수사 중에 있다.

Три жительницы Сахалина отдали фальшивым родственникам и подруге почти 90 тысяч рублей

Мошенники обманули трех жительниц Сахалина по одинаковой схеме. Аферисты писали с номеров 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подруги с просьбой занять денег,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заявлением в полицию 35-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братилась 6 сентября. О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неизвестный похитил у нее 35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имерно в 19:40 она получила сообщение в мессенджере с номера двоюродного брата. Тот просил занять ему денег на пару часов — якобы он не может оплатить интернет-заказ, так как на карте закончился лимит. Далее женщина получила номер карты для перечисления средств. Потерпевшая сделала перевод, а позже «брат» попросил одолжить ему еще 55 тысяч рублей. Она ответила, что денег у нее больше нет, а позже узнала, что мессенджер брата взломали.

Аналогичные заявления в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за минувшие сутки поступили еще в двух районах. 32-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Корсакова перевела мошенникам 34 тысячи рублей. Перед этим ей поступило в мессенджере сообщение с номера подруги, которая просила дать денег займа на пару часов.

40-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Невельска лишилась 17 тысяч рублей. Ей 4 сентября пришло сообщение от сестры, в котором она просила занять 34 тысячи рублей. Потерпевшая перевела по указанному номеру 17 тысяч рублей. После этого ей снова стали поступать сообщения с просьбой найти еще денег. Заподозрив, что это мошенники заявительница позвонила своей сестре, ко-

торая сообщила, что никаких денег занять не просила. По всем фактам мошенничества возбуждены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Идет следствие.

сахалин에서 처음 <애호박 축제> 열려

아니와 지역에서 처음으로 <애호박 축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교육기관, 지역 행정부, 지역 원예농업자들이 주최했다고 '아니와 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해졌다.

축제 행사장은 기차역 광장이었다. 이 행사에서 보육교사와 교사, 순수 농민들이 자신만의 요리 명작을 선보였다. 이에 아니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찾아와 이 요리들을 맛본 가운데 도시의 예술단의 공연도 펼쳐졌다. 아니와 마을 학교의 웨로니카 칼리나 교장은

"오늘 전시하고, 우리가 맛본 모든 식품들은 우리 학교의 뜰에서 우리가 재배한 것들입니다."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흥겨운 이 축제가 전통으로 자리잡기를 바라고 있다. 주최 측은 아니와 주민들의 요청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Фестиваль кабачка» впервые прошел на Сахалине

В Аниве впервы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кабачк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учрежд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круга и местные садоводы-огородник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Telegram-канал «Анивский городской».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фестиваля стала привокзальная площадь. Свои кулинарные шедевры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едставили воспитатели, учителя и простые дачники. Жители и гости Анивы активно дегустировали блюда. Перед гостями также выступил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города.

«Всю продукцию, которую сегодня выставили на показ и на дегустацию, мы вырастили сами на своем пришкольном дворе»,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школы села Огоньки Вероника Калинина.

По мнению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этот фестиваль должен стать традиционным.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обещали учесть все пожелания анивчан.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ФГБОУ ВО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на программу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Уч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азовый уровень)»

Целью программ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явля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шко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ладающих современными знаниями и навыкам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эффективно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для обучения восточным языкам учащихся в разли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Задачи программы:

- рассмотреть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формы и методы обуче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 выработать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и умения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углубить знания о культуре страны изучаемого языка.

Категории слушателей:

Целевая аудитория программы – гражда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желающие рабо-

тать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а также студенты старших курсов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Требования к профилю предшествую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 освоению программы допускаются лица, имеющие средне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или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опыт работы в области разработки и реализац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а также лица, получающие средне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и (или)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ри условии обучения на выпускном курсе).

Форма обучения – очно-заочная с применением дистанцион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нлайн).

Срок обучения: октябрь 2023 г. – июнь 2024 г.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ок: до 25.09.2023 г.

Контакты: de_kv@sakhgu.ru (Де Кари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7-914-123-23-41 (Корнеева И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